

2020민주시민교육협력사업

민주주의를 만나다



아리아리협동조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차 례

청계천에서 한국현대사를 바라보다

대한민국의 심장, 전태일의 죽음 그리고 봉제 노동자의 삶
일정표. 05

청계천은 어떤 곳인가요. 06

어떤 곳을 찾아가나요. 1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전태일 기념상(동상), 전태일 거리.

전태일 분신장소(평화시장).

이음피움봉제역사관.

87년을 만든 사람들, 그 길을 따라 걷다

군부독재를 몸으로 막아낸 이웃들의 이야기

일정표. 22

87년 6월 항쟁은 무엇인가요. 23

어떤 곳을 찾아가나요. 30

민주인권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

한국은행 앞 분수대명동성당&향린교회

그레뱅뮤지엄(옛 미국문화원)

서울성공회대성당&서울시청 광장

서울역광장

걸으며 민주 속으로 후기

일만하냐고. 45

광화문에서 평화시장까지. 47

한줄느낌. 51

답사에 함께 한 사람들. 54

활동사진. 55

청계천에서 한국현대사를 바라보다

대한민국의 심장, 전태일의 죽음 그리고 봉제 노동자의 삶



일 정 표

2020.05.23.토

시간	장소	내용
12:00	광화문역 2번 출구	첫만남!
12:30-13:3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설전시, 특별전시
13:30-14:30	청계광장 및 인근식당	도보이동, 점심식사
14:30-15:30	전태일기념관	상설전시, 기획전시
15:30-16:30	청계천변	전태일동상, 전태일분신장소 (평화시장)
16:30-17:30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상설전시, 특별전시
17:30	동대문역(1호선)	다음 답사에서 또 만나요~

청계천에서 한국현대사를 바라보다

대한민국의 심장, 전태일의 죽음 그리고 봉제 노동자의 삶

1. 청계천은 어떤 곳인가요?

청계천(淸溪川)은 조선시대 개천(開川)으로 불렸고, 사대문 안의 물들이 모여 흐르던 일반적인 자연하천이었습니다. 청계천 물은 왕십리 바깥에서 중랑천과 합쳐서 한강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청계천은 종로와 을지로를 나누고 길을 따라 흐르는 깔끔한 하천의 모습이죠. 자연하천 시절의 청계천은 평상시에 물이 마르고 생활오수가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불어 잠기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레 조선 한양과 식민지 경성에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거주지를 사이에 두고 서울은 북촌과 남촌, 또는 조선인 거주지역과 일본인 거주지역(혼마치)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식민지기 청계천변 판잣집>

청계천은 식민지기 일본인/조선인 차별의 경계선인 동시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차별의 지역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도시의 하수구가 되어버린 이 공간을 사람들은 탁계천(濁溪川, 더러운 물이 흐르는 시내)이라 비웃었습니다.

가난한 동네는 도시개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1920년대 이후 여러 차례 청계천 복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6년 1만평 택지 조성계획, 35년 청계천 복개 및 고가철도 건설 계획, 39년 자동차 전용도로 계획, 40년 전차와 지하철 부설계획 등. 이러한 계획들은 재정문제로 대부분 구상에 멈췄지만 근대도시로 변모하는 경성, 그리고 도시개발의 측면에서 주목되었던 청계천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7년 태평로~무교동 일부 구간이 복개되었고 광통교 옆으로 선로가 깔려 전차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해방 후 청계천의 모습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배출된 토사와 쓰레기가 하천을 뒤덮었고 천변을 따라 여전히 판잣집이 몰려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49년 청계천 준설 계획을 세웠지만 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중단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생계를 위해 서울로 몰려든 사람들,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피난민들이 몰려들며 청계천에는 더 많은 판잣집이 생겨났습니다.

1955년 정부는 광통교 상류부터 복개작업을 시작했고 58년부터 61년까지 광교에서 동대문운동장까지, 65년부터 67년까지 청계 6가에서 청계 8가 신설동까지, 70년부터 77년까지 청

계 8가부터 신답철교까지 복개가 완료되었고, 그 위에는 고가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청계천변에 널려있던 판잣집은 모두 사라지고 현대식 상가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몇 년 전까지 서울의 슬럼가였던 청계천은 근대화, 산업화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청계천 개발과정에서 주변에 살던 판자촌 사람들은 봉천동, 신림동, 상계동 등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여 달동네를 형성했습니다.



<1969년 3월 22일 삼일고가도로 개통>

청계천은 극심한 교통난의 고가도로와 ‘없는 것 없이 다 판다’는 고가도로 아래의 상가지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청계고가도로는 철거될 때까지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겪는 도로로 유명했습니다. 한편 고가도로를 따라 만들어진 상가지역은 골동품,

헌책, 불법 레코드판, 비디오, 각종 기계부품, 전자제품, 수족관 등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던 상점이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노후화된 청계고가도로의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90년대 초중반 몇몇 지식인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청계천 복원 이야기는 2000년 ‘청계천 살리기 연구회 심포지엄’으로 발전했고, 2002년 3차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3차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는 청계천 복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되었습니다. 2003년 7월 청계고가 철거를 시작으로 2005년 9월 광화문부터 성동구 신답철교까지 5.84km의 청계천이 오늘날 모습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서울의 지류하천으로 랜드마크가 되었고, 도심의 열섬현상을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서울 도심에서 편안히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천변을 걸으며 더 고민하게 됩니다. 첫째, 청계천을 떠난 상인들은 어디로 갔을까? 청계천 복개공사 속에서 판잣집 사람들이 다른 동네로 떠밀려났듯 상인들은 대부분 서울시의 구두약속 속에서 가든파이프(송파구)로 옮겨갔습니다. (재)개발은 맨땅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그곳에서 거주하고 생계를 이어 나가던 사람들의 이주를 전제로 진행됩니다. 전국토의 개발과 재개발이 일상인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학교/직장의 이전 모습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둘째, 복원을 곧 자연 회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청계천은 엄밀히 자연하천이 아닙니다. 청계천은 ‘자연적으로’ 물이 마르는 건천입니다. 게다가 북한산-광화문-청계천에 이르

는 수원지 하천을 복구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청계천에는 한강물과 지하수를 섞은 물을 인공적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자연하천이 되더라도 청계천은 평상시에 물이 흐르지 않고, 여름에는 많은 토사를 쌓이게 만듭니다. 홍수 시에는 주변 범람으로 토사를 한 번에 쓸어갑니다. 현재 청계천 복원은 자연하천으로 복원이 아닌 관리되는 공원으로 복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인공 구조물과 자연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 어떤 곳을 찾아가나요?

①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07년 광복절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역사가 기록되고 새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현대사 박물관’을 짓겠습니다. 광화문 앞에서 송례문까지 거리를 ‘국가의 얼굴’로 가꾸어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를 여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처럼 광화문에서 남대문을 잇는 세종로, 태평로는 높은 기업 빌딩과 더불어 한국 정부를 상징하는 많은 기관(경복궁, 정부종합청사, 서울시청, 남대문 등)들이 즐지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국가의 얼굴’ 프로젝트의 정점으로 기획되었습니다. 2008년 구체적으로 설립 계획이 발표되었고, 수많은 논란 속에서 2012년 개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국가의 얼굴’로 안성맞춤인 건물일지 모릅니다. 1960년 미국원조(USAID) 550만 달러를 제공받아 미국 설계사 PA&E, 미국 시공사 Vinnel은 1961년 지상 8층의 쌍둥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한 건물은 미 원조기관이었던 유솜(USOM) 청사부터 현재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사용 중입니다. 다른 한 건물은 5.16쿠데타 세력의 국가재건최고회의 건물로 사용되다가 경제기획원, 문화공보부 건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과 미국의 밀접한 관계, 또 정부주도 경제개발과정을 상징하는 건물인 셈입니다. 쌍둥이 건물은 광화문에서 벌어졌던 현대사의 명장면을 모두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1961년 완공된 광화문 쌍둥이 빌딩>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건립 당시부터 역사학계, 시민운동 진영에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물관/역사관이 가져야 할 ‘과거 성찰’보다 ‘정권 홍보관’으로 사용될 여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박물관 전시계획도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 저항했던 시민들의 저항은 소략한 채 새마을운동 등 권위주의 정부의 치적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정치권력 교체의 전리품”으로 박물관이 운영될 것이란 비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박물관은 비판적인 역사학 분과를 도외시 한 채 운영되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주진오 교수가 관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올해 5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기존에 비판받았던 상설전시를 새롭게 바꾸어 공개했습니다. (5월 시범운영, 6월 정식운영) 현재

상설전시를 구성하면서도 역사학계 일부에서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현대사’ 박물관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시범운영 기간에 직접 관람하면서 어떤 전시가 필요한지, 어떤 현대사 박물관을 만들어야 하는지 답을 구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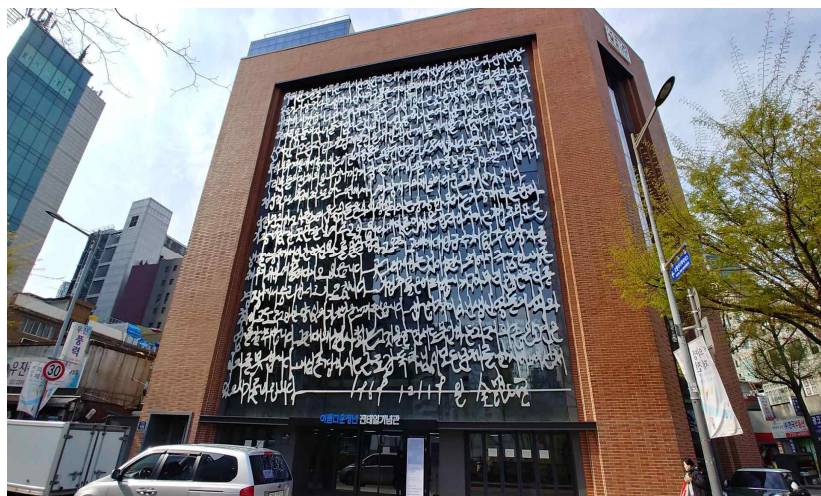
- 5층 상설전시,
- 3층 기획전시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현대사 속 광화문 공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추천합니다.

【송은영, 광화문, 현대사의 현재진행형 공간, 한국역사연구회 홈페이지, 2019】

②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

1981년 전태일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하고 『전태일 평전』을 펴냈습니다. 기념관은 “노동중심, 노동존중 도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상징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전태일 분신 49년만인 2019년 4월 전태일 기념관은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기념관은 전태일 기념상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종로3가 청계천변에 세워졌습니다. 건물 전면에는 1969년 전태일이 작성한 ‘근로감독관에게 보낸 진정서’ 글귀를 그대로 새겨 넣었습니다.



<전태일 기념관 전경>

전태일 기념관은 전태일의 생애와 노동운동을 다루는 상설전시 뿐 아니라 오늘날 노동의 문제를 고민해보는 다양한 기획전시 및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기념관을 둘러본 뒤 전태일 기념상(동상), 전태일 분신장소인 평화시장을 향해 걸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기획전시 : <함께하는, 길> (1층), <보고싶은 얼굴> (2~3층)

③전태일 기념상(동상), 전태일 거리

청계천 복원이 완료되었던 2005년, ‘전태일거리 시민의 힘으로 만들자’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영삼,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포함한 1만 5,000여 명이 참여한 4,000여 개의 추모 동판이 바닥에 새겨졌습니다. 전태일 거리를 시민의 손으로 만들자는 캠페인의 서울시의 말바꾸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전태일 거리(청계천 6가~7가)와 전태일 다리 지정을 약속했던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 완공을 앞두고 ‘전태일’ 명칭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전태일 동상도 어렵사리 세워졌습니다. 전태일 동상은 서울시 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아 2005년 9월에야 간신히 제막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념상은 2014년 종로와 평화시장을 잇는 버들다리에 세워졌고, 서울시는 2015년 평화시장 인근의 1.4km를 전태일 거리로 지정했습니다.



<2012년 8월 28일 전태일 기념상을 방문한 박근혜 대선후보와 이를 막아선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전태일 기념상 및 거리는 기억투쟁 속에서 만들어졌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선거 후보는 전태일 재단을 방문하려다 유족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는 대신 전태일 기념상을 방문했는데 여기에서 쌍용차 해고자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22명의 노동자가 죽은 쌍용자동차 대한 문 분향소는 찾아가 보지도 않으면서 여기 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고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며 박근혜 대선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전태일 기념상을 둘러보고 거리를 걸으며 바닥에 새겨진 동판의 글귀를 읽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동판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기억 투쟁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④전태일 분신장소(평화시장)

2000년 11월 청계천로, 평화시장 입구인 이곳에는 “이곳은 영원한 노동자의 벗 / 전태일이 1970년 11월 13일 /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 분신 항거한 곳입니다.”라는 동판이 새겨졌습니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화형식 집회를 치르기로 한 날 시장 안쪽에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며 몸에 불을 지르고 수십 미터를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11월 14일 오전 1시 30분 “엄마, 배고파요”라는 말을 남기고 숨졌습니다. 전날 새벽에 집을 나선 뒤 죽음 앞에 고뇌하며 한 끼도 먹지 못했던 스물두살 청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1948년 대구에서 태어난 전태일은 어린 시절부터 여러 동네를 전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가난으로 부산, 서울, 대구 등지를 가족들과 옮겨 다녀야 했고, 본인도 두 차례 가출을 감행하며 생계와 공부를 향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64년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은 다음 해 여름이 되어서야 서울에서 다시 모여살 수 있었습니다. 전태일이 열일곱살이 되던 해입니다. 전태일은 이맘때 평화시장에 시다로 취직하며 첫 임금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도시 불량 청소년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던 시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일을 도왔던 전태일은 금방 미싱보조-미싱사-재단보조-재단사로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남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이 풍부한 청년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감정에는 약한 편입니다. 조금만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마음이 언짢아 그날 기분은 우울한 편입니다. 내 자신이 너무 그런 환경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평전, 37쪽)

1967년(19세)에 근로기준법을 알게 되며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졌고, 69년(21세)에 재단사 동료들과 바보회를 조직하여 회장을 맡았습니다. 회원들과 노동법을 공부하고 시장 내 노동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청과 노동청에 진정도 하였습니다. 69년은 전태일에게 좌절을 안겨준 해이기도 합니다. 노동청 진정이 좌절하고 바보회도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해고

까지 당하자 그는 막노동을 하면서 자전적 소설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해가 바뀌어 삼각산 임마누엘수도원 건축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던 그는 다시 평화시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70년(22세) 9월 평화시장에서 삼동친목회를 조직한 그는 동료들과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제보하고 다시 시청과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경향신문 사회면에 보도되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여전히 평화시장의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공들였던 집회 준비는 정보과 형사의 잠입으로 허망하게 끝나기도 했습니다. 전태일은 동료들과 근로기준법 화형식 집회를 다시 준비했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친구와 어머니에게 “엄마, 내가 못다 이룬 소원들을 엄마가 제 대신 이루어주세요.” “친구들아, 절대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전태일의 죽음은 1970년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60년대 박정희식 경제개발의 음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대학생 및 지식인에게는 함께 살아갔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삶을 일깨워준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전태일은 노동운동 또는 노동자의 삶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민주노조 운동이 성장하며 전태일 항거일인 11월 13일은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주간이 되었습니다. 88년 11월 13일 첫 대회가 열린 이후 오늘날까지 매년 11월이면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⑤이음피움 봉제역사관/평화시장

평화시장은 서울에만 있지 않습니다. 부산 범일동, 대구 신암동, 김천 평화동에도 있습니다. 서울 평화시장은 북한에서 내려온 상인들이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붙인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화시장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 청계천으로 몰려든 판자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판자촌 사람들은 날품을 팔아 재봉틀(미싱) 한 대를 마련하고 옷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청계천변 의류 노점상의 60%는 북한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1961년 11월 평화상가 번영회가 창립되고 다음 해인 2월 평화시장주식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식 건물 완공 속에서 청계천변 판자촌 주민이나 서울로 갓 상경한 청소년은 평화시장의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평화시장은 날로 번성하여 68년 동화시장, 69년 성동상가(현 신평화시장), 70년 통일시장, 동대문종합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전태일 분신 이후에도 75년 동평화시장, 79년 남평화시장, 흥인시장, 광희시장, 덕운시장이 개장하였고, 80년대에도 서울운동장평화시장, 제일평화시장 등이 연달아 개장했습니다. 96년 평화시장 외관을 리모델링하여 현재의 모습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평화시장은 좁게 말하면 평화시장만으로 볼 수 있지만 넓게는 동대문 일대에 생겨난 의류 상가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은 2018년 4월 종로구 창신동에 개관했습니다. 창신동은 의류산업이 발달한 동대문-평화시장의 길 건너 골목에 위치해 봉제공장들이 들어서기에 좋은 동네입니다. 창신동의 봉제산업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분

업화된 여러 봉제회사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음피움은 실과 바늘이 천을 이어 옷을 완성하듯 서로를 잇는다는 의미의 ‘이음’과 꽃이 피어나듯 소통과 공감한다는 ‘피움’을 결합한 말입니다. 서울형 도시재생 1호인 창신·송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거점시설로 공공 재정 및 주민 참여로 조성되었습니다.

※청계천 평화시장의 흥망성쇠에 대해서는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시 “동대문패션의 시작, 평화시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7년을 만든 사람들, 그 길을 따라 걷다
군부독재를 몸으로 막아선 이웃들의 이야기



일 정 표

2020.06.20.토

시간	장소	내용
13:00	민주인권기념관 (옛 남영동 대공분실)	김근태 고문, 박종철 고문치사
13:30 ~ 14:00	이동(버스)	시내버스 162번 남대문시장 앞 하차
14:00	한국은행 앞 분수대	6월 항쟁 격전지
14:30	명동성당&향린교회	농성 및 국본 발기대회
15:00 ~ 16:00	인근 카페	커피 한잔의 여유~♪
16:15	그레뱅뮤지엄 (옛 미국문화원)	80년대 反美운동
16:30	서울성공회 대성당, 서울시청	6.10 국민대회의 시작 7. 9 이한열 노제
17:00 ~ 17:30	이동(버스)	시내버스 1711번 서울역 하차
17:30	서울역 광장	6.26 국민평화대행진

87년을 만든 사람들, 그 길을 따라 걷다

- 군부독재를 몸으로 막아선 이웃들의 이야기 -

1. 87년 6월 항쟁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이야기, 공식 기억으로서 87년 6월 항쟁

33년 전인 1987년은 한국사회에서 ‘민주화의 해’로 기억되고 있다. 국민대회가 열렸던 6월 10일부터 6.29 선언이 발표된 6월 29일까지 서울과 대도시는 물론이고 지역의 읍, 면 단위까지 호헌 철폐, 직선제 쟁취를 요구하며 들불처럼 시위가 일어났다. 87년 6월 항쟁은 군부 독재의 오랜 유산을 걷어낸 결정적 사건이었다. 직선제로 16년 만에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게 되었고, 헌법이 개정되어 ‘87년 체제’라고 부르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87년 6월 항쟁은 전민(全民)항쟁이자 민주화 운동의 대표로 불리며 30여 년 동안 사회 운동의 밑거름이자 근원으로 작동하였다. 90년 반민자당 투쟁, 91년 고 강경대 열사투쟁과 같은 80년대 학생운동의 후예들은 ‘제2의 6월 항쟁’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비교적 최근인 2008년 촛불집회에서도 6.10항쟁 기념일에 맞춰 최대인파(주최 추산 40만 여명)가 모였다. 이보다 한 해 앞서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였던 2007년 5월 2일, ‘6.10 민주항쟁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정부는 기념일을 제정하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전국적

인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고결한 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87년의 기억에서 직선제, 민주화, 넥타이 부대, 비폭력 전민항쟁은 강조되는 말들이자 기억이다.

[주요사건 연표]

- 1985. 신한민주당 1000만 개헌 서명운동
- 1986. 전두환, 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헌 유보한다고 밝힘
- 1987.1.14.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남영동 대공분실)
- 1987.2.7. 박종철군 범국민추도식
- 1987.3.3. 박종철군 49제 및 고문추방 국민대행진
- 1987.4.13. 호헌조치, 노태우 대통령 후보 선출
- 1987.5.20.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박종철 사건 진상조작 폭로
- 1987.5.23.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 발족
- 1987.6.9. 연세대생 이한열 피살
- 1987.6.10. 범국민대회
- 1987.6.10.-15. 명동성당 농성
- 1987.6.18. 최루탄 추방 결의대회
- 1987.6.18. 부산 노동자 이태춘 시위 중 추락 (24일 사망)
- 1987.6.26. 국민평화대행진 (전국 34개 시, 4개 군, 10만 여명)
- 1987.6.29. 노태우, 직선제 개헌 및 민주화 조치 선언
- 1987.7.9. 이한열 장례식
- 1987.7.-9. 노동자 대투쟁
- 1987.10. 헌법 개정 (87년 체제)
- 1987.12.16. 대통령 선거 실시

두 번째 이야기, 다른 장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¹⁾

『백년 동안의 고독』으로 유명한 소설가 마르케스는 그의 자서전에서 “삶이란 한 개인의 생애 그 자체가 아니라, 현재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자 그 삶을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라고 썼다. 그의 말처럼 역사적 사건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일 것이란 기대와 달리 “어떻게 기억(기념)되는가”에 따라 다르게 기록된다. 87년 6월 이전에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그 경험은 또 87년 이후에 어떻게 정리되었는가에 따라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고, 들을 수 있다는 말이다.

①공장으로 간 여성이 본 87년

그녀는 구로공단에 1년간 위장 취업한 상태였다. 80년대 지식인은 ‘실천적’ 또는 ‘변혁적’이란 수식어를 자랑스럽게 쓰고 다녔다. 노동자의 삶에 더 녹아들지 못하는 “쁘띠 부르주아지적인” 자신을 자아비판해야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적발된 위장 취업자가 85년 321명, 86년 5월 기준 259명이었다. ‘남한의 페테르부르크’라 불리던 인천에서 서노련과 인노련이 결성되었고 각 공장의 선도투쟁은 무참하게 깨져 나갔다. 86년 5월 3일, 변혁적 노동운동을 지향했던 그룹들은 마지막 여력을 모아 인천 시내를 점령하고 대중 선동을 진행했다. 자신들이 선도 투쟁에 나서면 전 인민이 함께 들고 일어날 것이라 믿었다.

1) 아래의 내용은 김원, 2009, 『87년 6월 항쟁』(책세상)의 「3장 87년 6월 전야 - 그들 기억 속의 87년」을 요약한 것임.

잠시 ‘해방구’였던 인천 시내의 싸움은 경찰 73개 중대 1만여 명이 투입되며 대규모 검거 및 수배로 막을 내렸다.

해가 바뀌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났지만 인천은 6월 10일까지 조용하였다. 시위 당일이 되자 부평공단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서울은 넥타이 부대라 불리는 화이트칼라가 부각되었지만 인천에서는 퇴근 후 노동자들이 시위대에 합세하여 새벽까지 거칠게 시위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10일, 18일, 26일 집회는 노동자 뿐 아니라 시장 상인들도 합류하여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특히 26일 집회는 ‘부평을 해방구로!’라는 구호와 함께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 날 집회장에서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창립 보고대회가 열렸다. 부평 경찰서장은 시위대에게 전경을 때리지 말라고, 전투 장비를 빼앗지 말아달라고 사정할 정도였다.

②대학생이 본 87년

1984년 전두환 정부는 소위 ‘유화조치’를 시행했다. 삼삼오오 모여도 감시받았던 캠퍼스는 이제 대자보가 붙고, 사람들이 모여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했다. 학도호국단은 각 대학에서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며 학생회로 변화했다. 씨클을 중심으로 『해방전후사의 인식』, 『전환시대의 논리』, 『민중과 지식인』 등의 책을 읽거나 각종 ‘뺨뿔렛’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85년 씨클과 팀이 해체되고 정파 중심의 활동이 나타났다. 4월 고려대에서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이 발족했고, 그 산하에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을 위한 투쟁위원회’(삼

민투)가 설치되었다. 86년이 되자 학생운동 그룹은 자민투, 민민투로 나뉘어 여러 사안에서 충돌을 거듭했다. 이들의 지나친 대립과 반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운동권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86년 10월, 건대항쟁이 일어나 1,274명의 학생이 구속되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기존 학생운동의 조직 역량과 대중 기반이 모두 파괴되었고, 한양대에서는 50명 넘게 구속되어 학생회 출마자가 없을 정도였다. 김세진, 이재호 열사가 죽은 서울대 앞 술집에서는 노랫소리가 사라졌다.

85년과 86년의 패배는 학생운동 그룹을 위축시켰고, 기존의 선도 투쟁 방식을 자제하려는 성향으로 이끌었다. 87년 2월 7일 열린 고문치사 규탄집회에는 많은 시민이 모이지 않았지만 영세상인, 점원, 집꾼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농성을 진행했다. 학생운동 그룹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6월 10일이 되자 학생들은 거리로 나섰고, 전경들에 둘러싸인 순간 더 많은 시민들이 시위대 주변으로 몰려 들었다. 시위 구호는 ‘민주 헌법 쟁취하여 민주 정부 수립하자’, ‘더 이상 못 속겠다, 거짓 정권 물러가라’, ‘동장에서 대통령까지 내 손으로..’ 등으로 소박했다. 시위 방법도 차량 경적 시위, 태극기와 손수건 흔들기, 스프레이 낙서, 버스 승객 유인물 나눠주기, 호루라기 불기 등 다양했다.

③부산 배달 노동자가 본 87년

87년 6월 10일, 그는 일을 마치고 동네 친구들과 술 한잔 하러 자갈치 시장을 향하고 있었다. 6시쯤 도착했는데 학생을

중심으로 1천 명이 넘는 시위대가 모여 있었다. 시위대는 “애국 시민 단결하여 사기 정권 몰아내자”는 구호를 외쳤고, 곧 전경들이 최루탄을 쏘면서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7시가 되자 부산역으로 다시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보도블록을 깨 KBS 건물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8시 반쯤 자갈치 시장, 충무동 로터리, 보수동 로터리 등에서 경찰과 시민들의 한바탕 전투가 벌어졌다. 부산의 시위는 경찰 작전망을 흐트리는 산발적인 방법으로 벌어졌다. 지휘자와 학생 선봉대 십여명이 곳곳에서 노래를 부르며 시위대를 규합하고, 경찰이 공격하면 다시 흩어지는 방법이었다.

6월 16일 시위대는 대청동 사거리, 남포동 주변에 진출하여 충무동 방향 시위대와 합류하였다. 이 일대는 잠시 “해방구”가 되었으나 백골단에 밀려 흩어졌다. 17일 새벽 시위대는 국제시장 신호대 앞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반격에 나섰다. 시위대는 가톨릭 센터 측과 협상을 벌여 비상시에는 센터 안 진입을 승낙받았다. 15일 명동성당 농성이 해산되고 전국적인 시위가 소강상태를 맞이했다고 느낀 시위대는 부산 가톨릭 센터를 제2의 투쟁 근거지로 만들려고 했다. 18일이 되자 공수부대나 군대가 파견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시민들은 여전히 성금과 음식을 모아 지원했지만 유연비어 속에서 시위대는 20일 100명 정도로 줄었다. 농성단 내부에서 갑론을박 끝에 26일 집회 준비를 위해 농성 해제를 결정하였다. 이날 해산은 외부 개입을 차단한 상태에서 농성단의 자발적인 결정이었다.

“당신의 87년 6월은 어떤 색깔이었나요?”

A series of 25 horizontal dotted lines provided for handwriting or drawing.

2. 어떤 곳을 찾아가나요?

①민주인권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



남산은 박정희 정권기부터 중앙정보부, 경찰 대공부서 건물이 산재했었다. 1980년대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뀐 이후에도 남산은 反정부 인사에게 공포의 총본산과 같았다. 최종길 서울대 교수 타살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민청학련 사건,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구미 유학생 사건, 임수경/문규현 방북사건 등이 조작되거나 협박, 고문 등 독재 정부의 잔혹한 무기로 활용되었다. 남산 일대의 안기부(옛 중정) 건물들은 95년 이후 내곡동으로 본부가 이전하며 하나씩 사라지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남영동 대공분실(현 민주인권기념관)은 남산으로 대표되는

안기부, 서빙고 호텔로 불리던 보안사령부 대공분실과 함께 고문수사로 악명이 높았던 곳이다. 이곳의 정식 명칭은 “경찰청 보안3과”였고, 홍제동 보안4과와 함께 보안경찰 외근 부서 중 하나였다. 홍제동이 ‘방첩’을 담당했다면 남영동은 ‘안보 위해 사범’을 전문으로 다뤘다. 즉, 반독재 민주인사들을 납치, 고문, 수사하였던 곳이다.



이 건물은 1976년 가장 유명한 건축가였던 김수근에 의해 설계되었다. 검은 벽돌의 이 건물은 김수근의 대표 건축물인 공간 사육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김수근은 김종필에게 스카웃되어 군사독재 시절에 워커히(1961), 자유센터와 타워호텔(1963), 세운상가(1966), 올림픽주경기장(1977), 올림픽 체조, 사이클, 수영경기장(1984), 서울지방법원 청사(1984) 등을 건축했다. 이 건물은 “대간첩 수사”를 명목으로 만들어졌기에 설계

단계부터 조사와 고문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 대부분 시설의 ‘조사실’은 지하에 있는데, 이 건물은 특이하게 5층에 위치한다. (6, 7층은 80년대 증축) 조사대상은 눈이 가려진 채 차에서 내려 건물 뒤의 출입구로 들어갔다. 5층까지 원형 계단을 올라야 했는데, 이는 조사 대상자의 공감각을 혼란하게 하여 공포심을 극대화 시키려는 의도였다. 5층에 도착하면 책상과 의자, 침대, 욕조, 변기가 설치된 똑같은 구조의 4.09평짜리 조사실들이 있었다. 조사실에 설치된 가구들은 자해 방지를 위해 바닥에 고정되었고, 창문은 폭이 좁고 위아래로 긴 2개의 창문이다. 이는 투신과 고문시 발생하는 비명소리를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한다.

이곳을 거쳐 간 여러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김근태(민청련 전 의장)와 박종철(서울대생)이다. 김근태 의장은 1985년 9월 4일부터 20일까지 5층 15호실에 끌려와 고문기술자 이근안 주도로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매일 5시간 정도 당했다. 물고문은 전기고문에서 발생하는 쇼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는 1985년 공판에서 고문 방법을 상세하게 공개하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연상했으며 이러한 비인간적인 상황에 대한 인간성의 절망에 몸서리칩니다.”라고 말했다. 또 “과연 인간이 한 인간의 고뇌와 죽음의 몸부림 앞에서 저렇게 냉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 인간에 대한 신뢰가 산산이 부서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하면서 ‘시집간 딸이 잘 사는지 모르겠다.’는 등 자신의 가족에 대한 애정 어린 말들을 주고받았으며 본인에게도 이야

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고문과 폭력적 행위를 자행하는 자들이 개인의 가족에게는 인간적인 사랑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말했다. 김근태 전 의장은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을 했고, 2011년 사망하였다.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은 1987년 1월 13일 하숙집에서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 의해 연행되었다. 대학문화연구회 선배인 수배자 박종운의 거처를 묻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대공분실 5층 9호에서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받다가 14일 숨졌다. 경찰은 초기 발표에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발뺌을 했다. 검안 의사와 부검의사의 증언으로 19일 정부는 물고문 사실을 시인하고 2인의 수사 경관을 구속하였다. 사건의 일부가 공개되자 야당과 재야단체는 들끓었다. 2월 7일 박종철군 범국민추도회를 개최하였고, 2월 19일에는 기독교회관에서 고문사례 보고대회가 열렸다.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승훈 신부는 미사에서 치안감 박처원 등 대공간부 3명이 이 사건을 축소, 조작하였다고 밝혔다. 사제단의 성명은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켜 서울지검은 6명을 추가로 구속하였다. 재야진영은 5월 23일 국민추도준비위원회를 범국민대회준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6월 10일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였다. 이를 모체로 5월 27

일에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이 결성되어 6.10 대회를 박종철 치사 조작 규탄에서 더 나아가 4.13조치 철회 및 민주개헌쟁취로 확장하였다.

박종철은 2001년 2월 서울대학교에서 명예 졸업장을 받았으며, 2008년 경찰 인권보호센터(현 민주인권기념관)에 박종철 기념관이 개관되어 그의 신문기사, 친필 편지 등이 전시되었다. 대공분실은 1991년 경찰청 보안분실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2005년 경찰청 인권센터로 변경되었다. 2018년 12월 경찰청인권센터가 떠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관리권을 위임받아 민주인권기념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②한국은행 앞 분수대



<6월 10일, 한국은행 앞에서 시위대를 막는 전투경찰의 모습>

1987년 6월 10일과 18일, 시위대와 전경 사이에서 가장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던 공간이다. 6월 10일 국민대회에서 1천여명의 시위대는 퇴계로 쪽에서 신세계 백화점 앞으로 진출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을 모두 밀어내고 도로에서 돌을 찾아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투석전을 벌이다 최루가스가 퍼지면 흩어지고, 가스가 가라앉으면 다시 인도에서 시위를 벌이는 방식을 택했다.

<6월 18일, 검은 연기로 뒤덮힌 한국은행 앞 거리>

6월 15일 명동성당 농성이 종료되고 학생들은 한편의 자신감과 다른 한편으로 시위 소강상태에 따른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18일의 시위는 더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시위대는 전투경찰 300여 명을 완전히 포위하고 무장을 해제시켰다. 그리고 한국은행 앞 분수대에 들어가 “민주주의 만세”를 외쳤다.

③명동성당&향린교회

- 명동성당 농성(6.10-6.15)

범국민대회가 열렸던 6월 10일 오후 10시경, 경찰이 명동 일대 교통을 전면 차단하자 근처 퇴계로, 을지로, 종로 일대에서 경찰과 접전을 벌이던 시위대 일부가 자정에 명동성당 안으로 몰려 들어왔고, 곧 학생과 시민들이 합류하였다. 명동성당 안 시위대는 한때 1,000여 명을 넘었다. 시위대는 투쟁 열기를 명동 밖으로 확장하기 위해 즉각 해산하자는 측과 명동성당을 투쟁본부로 거점화하자는 투쟁론으로 맞섰다. 임시집행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일단 6월 12일 정오까지 농성을 지속한다는데 잠정 합의하였다.

다음 날 농성소식이 일간지로 보도되자 시민들은 바리케이드와 담장 너머로 음식물, 속옷, 현금 등을 시위대에 전달하였다. 농성단은 전두환, 노태우 화형식을 치렀는데, 이는 공권력을 자극해 성당 주변 봉쇄와 농성자 체포 작전이 개시되었다. 성소(聖所)인 성당에 경찰이 침투하자 천주교 측은 성당 내 시위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러한 옹호는 농성단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12일 새벽이 되자 정부는 공수부대를 효창운동장 주변에 집결시키고 프락치를 통해 군부대 투입설을 흘렸다. 시위대는 분신용 휘방유를 준비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었지만 천주교 측의 중재로 바리케이드를 철거하고 정부의 진압 방침이 철회되었다. 13일부터 성당 주변에 넥타이 부대가 출현했다. 명동 일대에서 근무하던 화이트칼라들은 점심시간마다 미도파 백화점에서 명동성당까지 긴 행렬을 이루었다. 6월

항쟁의 외연이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순간이었다.

명동성당 농성은 87년 6월 항쟁의 모순과 균열을 내포한 사건이기도 했다. 먼저 서대협과 국본의 갈등이다. 농성이 발생하자 국본의 인명진 목사는 농성이 국본과 무관한 것이며 질서를 지켜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농성단을 외부에서 지지한 것은 사무직 노동자였지만 실제 내부에서 농성을 강행했던 그룹은 도시빈민 및 노동자들이었다.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명동성당에는 이미 상계동 철거민들이 농성을 진행하고 있었다. 오히려 학생들은 군 개입설 등에 동요되며 농성의 해제를 주장하였다. 실제로 농성 유지에 관한 논쟁이 강해지는 시점에서 함세웅 신부는 독단적으로 시위대를 대신하여 안기부와 협상을 벌였고, 농성단 내부에서 농성 해제를 주장하였다. 농성 해제 과정에서 장기농성과 급진 투쟁을 막기 위한 종교계 및 학생 그룹의 활동이 일정 부분 작동하였다. 이는 87년 6월 항쟁이 ‘직선제 쟁취’, ‘야당 양김 정치인’ 중심으로 추진되는 과정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결국 지도부는 14일 농성 해제를 결정하였고 15일 명동성당 농성이 마무리되었다.

- **향린교회: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 발기대회(5.27)**

전두환 4.13 호전 조치 이후 호헌 철폐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새로운 투쟁 기구는 부산에서 먼저 조직되었다. 5월 20일 ‘호헌 반대 민주 헌법 쟁취 범국민운동 부산본부’가 결정되었고, 노무현이 상임집행위원장, 문재인 등이 상임집행위원을 맡았다. 같은 날 서울에서 각 부문을 대표하는 15명의 실무

대표들이 모였다. 새 단체 명칭은 ‘호헌 철폐 및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로 정했고 27일 발기인 대회, 28일 결성대회를 열기로 합의하였다.

경찰의 삼엄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여러 단체와 조직을 규합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다. 성공회 대성당, 향린교회, 복음교회, 종로 기독교회관 네 곳을 미리 섭외해놓고, 27일 아침에 최종 장소를 정하기로 작전을 짰다. 27일 오전 6시, 황인성은 네 곳의 장소를 돌며 사전 답사를 했다. 향린교회 근처에는 전경과 형사가 있었지만 골목 안에 있던 교회 앞에는 병력이 없었다. 오전 7시, 종로YMCA에서 오충일 목사와 논의 끝에 향린교회로 최종 장소가 결정되었다. 사전 연락담당자들과 몰래 접선하여 30여 분만에 향린교회로 2,191명 발기인을 대표하는 150명의 각계 인사가 모였다. 당국 감시를 고려하여 발기인대회 및 결성대회를 모두 한번에 치렀다. 여기에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로 명칭을 확정하였다. 김승훈 신부가 결성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삼창을 외쳤다. 국본은 민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추대하는 당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6월 10일에 맞춰 대규모 집회 및 시위를 단행하기로 하고 이를 준비하였다.

④그레뱅뮤지엄(옛 미국문화원)

1980년대 사회운동은 反美운동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학생운동은 특히 반미 자주화 운동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해방 이후 30여 년 동안 ‘반미의 무풍지대’로 알려졌던 한국 사회에서 큰 충격이었다. 반미운동의 근거지는 80년 광주 항쟁과 학살에서 출발한다. 신군부가 군을 투입하여 시민을 학살했는데 이 과정에서 군사 작전권을 보유한 미국의 목인이 드러난 것이다. 대학가에서 암암리에 퍼지던 광주의 진실은 곧 많은 대학생들 반미 자주화 운동으로 이끌었다.

미 문화원은 대사관에 비하여 경비가 삼엄하지 않으면서도 미국 문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치외법권 지역이라 경찰이 미국의 승인 없이 경찰력을 투입할 수 없었다. 따라서 반미운동의 중요한 타격 대상이 되었다. 1980년 12월 미 국무장관 브라운의 방한에 맞춰 광주 미 문화원 방화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가톨릭농민회 전남연합회 광주지부장 정순철(당시 27세)이 회원들과 함께 진입하여 불을 지른 사건이었다. 82년 3월에는 부산 미 문화원에서 다른 방화사건이 발생했다. 학생들은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이 당에서 물러가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하고, 부산 미 문화원을 불태웠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반미, 좌경용공 사건으로 몰아붙여 범인 검거에 나섰다. 이 사건으로 문부식 등 22명이 구속되고 최고 사형에서 최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언도되었다.

1985년 5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민주당이 선전하자 이에

고무뎀 학생들은 광주항쟁 계승기간을 맞아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계획을 세웠다. 전학련 소속 5개 대학생 73명은 2층 도서관을 점거하고 “광주사태 책임지고 미국은 공개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건물 바깥에 붙였다. 농성 사흘 만에 스스로 농성을 해제하고 전원 연행되었다. 이 사건으로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 함운경, 고려대 신정훈 등 25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한편 정부는 삼민투 사건을 조사하며 그 배후로 김근태 민청련 의장을 지목했고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하였다.



미 문화원은 1990년 서울시로 매각되었고, 92년 청소사업본부, 97년 종합자료관 등으로 쓰이다가 2008년 서울특별시청 신축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청 별관으로 사용되었다. 2015년 프랑스 CDA사 협약에 따라 ‘그레뱅뮤지엄’으로 바뀌었다. 미 문화원은 92년부터 을지로를 떠나 용산구 남영동 근처로 이전하였다.

⑤서울성공회 대성당&서울시청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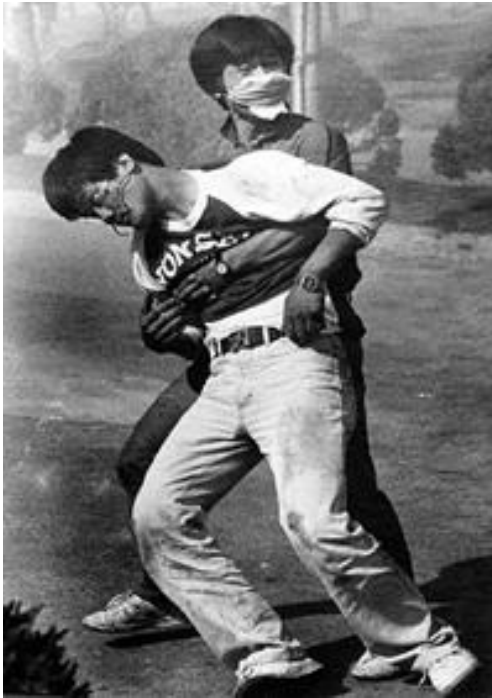
- 서울성공회 대성당(6.10 범국민대회의 시작)

국본은 6월 10일 오후 6시 범국민대회 개최를 결정했고 ‘국민 추도회 참가 요령’을 배포하였다. 이에 따르면 오후 6시 국기 해기식과 동시에 전국의 교회와 사찰은 타종하고 모든 차량은 경적을 울리자고 제안하였다. 서울 성공회 대성당은 미사 집전에 피아노 연주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찰의 감시를 피해 국본 지도부를 성당 안으로 들였다.

오후 6시가 되자 지도부는 덕수궁 옆에 위치한 대성당 종탑에서 노태우 대통령 후보 지명 무효 선언을 외쳤다. 그리고 해방 후 42년 되는 해에 분단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열자는 희망을 담아 42차례의 종이 울렸다. 김성수 성공회 주교는 4.13 호헌 철폐를 위한 미사를 집전하였다. 6.10 범국민대회가 성공회 대성당에서 시작된 것이다. 미사를 마치고 신부와 대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봉쇄를 뚫고 거리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15명이 연행되었고 다음 날 오전까지 단식 농성을 진행하였다.

- 서울시청 광장(이한열의 죽음과 노제)

6월 9일 연세대학교 앞에서는 ‘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가 열렸다. 50명에 불과했던 시위대는 금방 1,000명까지 불어났다. 경영학과 86학번 이한열도 최루가스에 대비하여 마스크를 쓰고 시위대 앞쪽에 섰다. 오후 5시 경찰은 학생



들을 향해 최루탄을 발사했고, 학생들은 백양로로 피했는데 이한열이 쓰러졌다. 뒤이어 그를 발견한 이종창이 달려가 그를 부축하였다.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로 실려 갔으나 뇌손상 상태에 빠졌다.

이 모습은 로이터 사진기자 정태원 씨가 촬영하여 그날 오후 6시 30분 ‘학생 한 명 사망’이란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다

음날 중앙일보 1면에 이 사진이 실렸다. 이 사진은 민주화를 향한 열망을 폭발시켰다. 전국에서 ‘한열이를 살려내라’는 외침이 번졌고, 넥타이 부대까지 격렬하게 시위에 결합하였다.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이한열 열사 장례식>

6.29선언으로 직선제가 쟁취되었지만 7월 5일 이한열 열사는 운명하였다. 7월 9일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은 민주국민장으로 치러졌는데 연세대학교 본관에서 신촌로터리, 서울시청 앞을 거쳐 광주 5.18묘역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서울시청 앞 추모 인파는 100여 만명에 달했다. 광주에서도 50만 명이 추모식을 거행했다.

⑥서울역 광장

6월 26일, 국본의 제창에 의해 ‘국민평화대행진’이 전국 34개 도시와 4개 군에서 개최되었다. 서울 25만, 광주 20만, 인천 2만 5천, 부산 55만, 대구 4만, 대전 5만, 마산 2만 등 100여만 명이 참가하였다. 경찰은 10만 여명의 시위 진압 병력을 배치했으나 시위대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서울 지역에서는 서울역 광장과 퇴계로 쪽 고가도로, 남영동 쪽 대로를 장악

하고 완강하게 버티는 2만 여명의 시위대, 지랄탄까지 동원하여 이들을 해산시키려는 경찰의 대접전이 3시간 가까이 벌어졌다. 이날 시위에서 전국적으로 총 3,467명이 연행되었고 수십 명의 사람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한 경찰 폭력에 분개한 시민, 학생들의 투석 및 화염병으로 남대문, 안양경찰서 2개 경찰서, 파출소 29개소, 경찰차량 20대, 여러 지역의 민정당사가 불타거나 파손되었다.

이미 6월 20일부터 백악관에서는 한국대책 특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당황한 빛이 역력했던 미국은 더욱 공개적으로 한국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6월 26일 시위는 6월 항쟁 기간 동안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집단 시위였다. 결국 6월 29일 노태우가 텔레비전에 직접 출연하여 직선제 개헌의 수용 및 구속자 석방, 김대중 사면 등을 핵심으로 하는 6.29선언을 발표했다.



<6.29선언이 있자 플라자호텔 뒷골목에 위치한 가화 커피숍은 오후2시부터 차를 무료로 나누었다>

걸으며 민주 속으로 후기

일만 하느냐고?

어젠 서울을 걸었다. 정확히는 청계천을 걸었다. 이름하여 '청계천에서 한국 현대사를 바라보다.'에 동행하였다. 부제가 '대한민국의 심장, 전태일의 죽음 그리고 봉제 노동자의 삶'이다. 광화문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를 둘러보고 전태일기념관을 거쳐 이음피움봉제역사관까지를 걸으며 현대사를 생각해보자는 의도다. 안내는 '사회적협동조합 기억과 평화'의 현대사 전공자가 맡았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1960년 미국의 원조를 받아 1961년 완공된 지상 8층의 쌍둥이 건물 중 하나를 리모델링해 개관했다. 이 건물은 5.16 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사용하다가 경제기획원, 문화공보부, 문화관광부로 사용되기도 했다. 다른 하나는 원조기관이던 USOM이 사용하다가 미국 대사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상설 전시를 개편하고 6월 공식 재개관한다. 5월 현재는 시범운영 중이다. 5층은 상설전시, 3층은 기획전시로 <5월 그 날이 오면>이 전시 중이다. 5.18 민주화 운동 40주기 특별전이다. 점심은 청계천 '대련집'에서 칼국수와 모듬전으로 먹었다. 칼국수의 국물 맛도 좋지만 호박고명의 아름다운 맛이라니. 곰배령의 봄바람 같았다. 청계천변의 전태일기념관은 건물을 보는 것 만으로도 울컥하는 감동이 있다. 전면부 가득 근로감독관에게 보냈던 진정서가 읽히기 때문이다. 기획전시 <함께하는 길>이 1층에서, <보고싶은

얼굴>이 2, 3층에서 전시되고 있다. 상설전시는 3층부터 내려 오며 보면 된다. 50년 전 그가 작성했던 태일피복의 사업계획서는 지금 시각에서 봐도 배울게 가득하다. 그가 이루지 못한 꿈은 동생이 사회적기업 '(주)참신나는옷'을 통하여 계승하고 있다. 꿈은 더 원대할 것이긴 하다. 전태일기념관 개관 이전에 사용하던 창신동 재단 사무실을 비껴 조금 오르면 이음피움봉제역사관이 있다. 평면액자와 디지털액자가 조화를 이루며 전시장이 꾸며져 있다. 절로 생각이 뭉게뭉게 피어 올라 끝간데 없이 자라는 하루였다.

봉하에선, 좋아하던 그 분, 그리운 그 분이 떠난지 11주기 추도식이 열린 날이기도 하다.

최재권(천안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



#국립역사박물관 #전태일기념관 #전태일 #이음피움봉제역사관 #기억과평화

광화문에서 청계천 평화시장까지

봄이 다 가고 여름이 찾아오는 5월 중순의 광화문 광장은 무척이나 뜨거웠다. 사람들과 자동차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열기도 있었지만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뜨거운 민중들의 마음이 뭉쳤던 곳이기에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기행 서두에서 ‘광화문은 종과 횡으로 나눌 수 있다.’는 말이 기억난다. 광화문을 기준으로 청와대-광화문-시청으로 이어지는 종적인 라인은 한국 사회의 공적인 정치권력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횡으로는 청계천과 평화시장이 자리잡고 있어 70년대 이촌향도를 한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다. 이렇듯 한국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광화문 광장 복판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대한 논쟁은 2012년 11월 개관 이후 꾸준히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부족한 채 산업화에 대한 단선적인 국가성공사관과 완성도 낮은 전시공간이 맞물리면서 역사학계와 시민단체의 많은 반발이 있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정화 교과서 문제가 대두되면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편향성에 대한 논란도 쟁점화 되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2017년 주진오 상명대 교수가 관장으로 취임했고, 역사학계의 공론과 통설에 입각해서 전시 구성을 차근차근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5월 개편된 상설전시가 민간에 공개되었다.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무색하게도 현재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역시 아쉬운 점이 가득했

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협소한 공간 안에 정치, 경제, 문화 등 많은 것들을 넣어 전시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깊이가 없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또한 4.3 항쟁은 대한민국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민중들의 심리와 정치권의 대립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된 매우 적어 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전시물의 중점과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설전시가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드백을 수용하여 더 나은 박물관이 되기를 기원한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나온 후 청계천 거리를 따라 걷다 보니 전태일 기념관을 만날 수 있었다. 기념관 전면에는 당시 전태일이 근로감독관에게 쓴 진정서 자필이 그려져 있어 전태일이라는 인물과 그를 기리는 박물관을 하나의 미술작품으로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태일 기념관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전태일이라는 인물이 성장해온 과정과 그가 분신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잘 볼 수 있었다. 또한 1층에서는 YH 무역에 관한 전시도 있었는데, 전태일이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그의 분신으로 인해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의지가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이어져 9년 뒤 유신 독재를 끝내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전태일 기념관을 나와 청계천을 따라 걷다 보면 전태일이 일했던 평화시장까지 갈 수 있다. 평화시장에 다다를 무렵에는 전태일을 기리는 동판들이 바닥에 새겨져 있다. 동호회부터 시작해서 각 학교 총학생회나 노동조합들, 여러 시민단체들이 동

판에 많은 메시지를 남겨 놨다. 전태일 동상이 있는 곳 주변에는 정치인들의 동판이 새겨져 있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의지를 잇겠다는 다짐들이었다. 70년대에 비해 한국사회도 노동자들도 예전에 비해 나아진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도 부당한 노동 현실에 맞서 싸우는 분들도 존재한다. 적어도 동판에 이름을 적은 정치인이라면 이러한 노동문제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태일 동상이 있는 평화시장을 나와 동대문을 통과해 아주 작은 봉제공장들을 지나쳐 걷다 보면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을 만날 수 있다. 원단이 들어와서 재단, 재봉을 거쳐 안감과 주머니, 단추를 다는 마도메와 다림질 및 포장 등의 작업을 하는 시아게까지 이 모든 일들이 분업화되어 하나의 옷이 탄생한다. 이러한 과정들이 하루만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이 있는 창신동은 오토바이 소리로 북적북적했다. 창신동의 골목 풍경과 어우러져 한국의 근대 산업화 속에서 노

동자들의 모습을 상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5월 기억과 평화 답사는 이렇게 끝났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이음피움 봉제 역사관까지.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라는 거시적인 부분에서 봉제 노동자의 삶이라는 미시적인 부분들까지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던 하루였다. 우리는 역사를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건들로 기억하지만 정치와 경제를 이루는 민중들의 삶과 투쟁들도 잊지 말아야 할 귀중한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기행이었다.

김규원(천안시민, 청년활동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태일기념관 #전태일 #이음피움봉제역사관 #평화시장 #기억과평화

한 줄 느낌!!

답사 자료는 미리 나눠 주시면 미리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시내에서 이동할 때는 3-4인 조를 짜서 이동하게 하면, 인원 관리 (와 친목)에 좋을 것 같습니다*[❁]

연령도 직업도 다양해서 진행에 있어 어려울 듯싶었지만 별 무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전태일기념관의 해설사의 설명이 한부분 마음에 걸렸습니다. "YH사건의 영향이 이어져 후에 '광주사태'로 발전했다"는 부분에서 '사태'라는 표현은 전태일기념관의 해설사로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전태일동상앞에서의 임광순선생의 해설에는 작은 울림을 주어 참가자들의 박수까지....구웃!*[❁]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 이후 10여번은 방문했습니다. 예전 전시 내용들에 대해서 크게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나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시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결코 좋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외국인들과 주로 방문했고, 그들이 관심을 갖는 한국 현대사를 보여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들은 주로 한국전쟁, 경제발전, 민주주의 발전 등 입니다. 제 아이들과는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보여주는 첫 번째 간단 코스는,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세종(문)과 이순신(무)를 설명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현대사를 보여주고, 한국의 대표적인 궁전인 경복궁으로 이동해서 관람하고, 민속박물관에서 한국인의 문화를 보여주고, 인근 북촌에서 한식으로 식사하는 코스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설전시장은 너무 많은 주제를 담으려 하여 조금 산만한 느낌이었습니다❀

전태일 거리 바닥 동판에 새겨진 글을 읽으며 걸었습니다. 걷는 내내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생각해 보는 하루였습니다❀

전태일기념관에서 평화시장, 이음피움봉제박물관으로 연결되는 코스, 전태일의 삶을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태일아, 밥 먹으러 가자!” 전태일 거리 동판에 새겨진 글 읽으며 울컥했습니다❀

청년 시절 4.19를 생각하면 먼 이야기로 생각되었었는데, 그 시간만큼 87년 6월을 경험한 나의 시간도 흘렀다. 오늘 87년을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함께 기행을 하며 청년시절 내가

가졌던 느낌을 오늘의 청년들도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 경험한 것과 하지 못한 것의 차이랄까? 87년 서울시청 광장에 한 점으로 있었을 모습을 생각하며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

민주인권기념관은 경찰청인권센터로 있을 당시 방문한 경험이 있다. 오늘 코로나로 개관이 연기되어 들어 가보지 못했지만 설명을 들으며 기념관 세로로 난 작은 창을 올려다보며, 고문 받았을 당시의 모습들을 눈을 감고 떠올려보았다. 참 끔찍한 일이다. ❀

분명 87년의 6월, 그 현장에 있었다. 그런데 희미한 기억뿐이다. 오늘 87년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역사학자의 설명을 들으며 기억하고 전승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역사가들의 몫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무엇을 기억하고 전승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

87년 나는 네 살이었다. 자료를 통해서 때로는 그 시절을 경험한 선배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며 서울광장에 울려 퍼진 함성을 상상해보곤 했다.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세상은 시민들의 힘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한구석에는 차별이 있고, 폭력이 난무한다. 민주주의, 시민들의 힘을 키우는 일을 쉬지 않고 해야 한다. ❀

답사에 함께 한 사람들



추경미, 이경주, 최재권, 강연수, 한기진, 최인담, 김성희, 이두빈, 임성희, 김규동, 장수민, 유여진, 유효주, 유병준, 최병련, 최보민, 문성근, 김종수, 조진경, 김규원, 임광순, 최슬기, 김지선(23명)



김성희, 이두빈, 한기진, 김해진, 김경숙, 김종수, 조진경, 김규원, 임광순, 최슬기, 김지선(11명)

활동사진





